Commodity

원자재 가격 조정, 투자자금 동향은?

Commodity Strategist 김소현
sohyun.kim@daishin.c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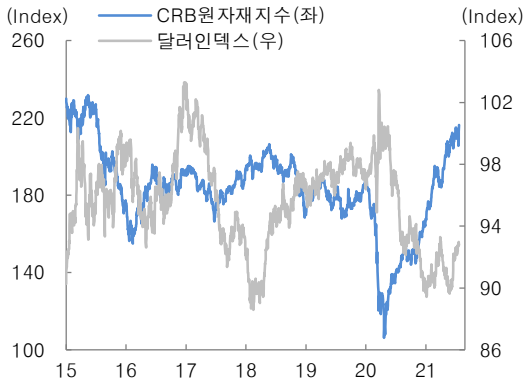
- 7월 원자재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다. CRB 원자재지수는 7월 중순 205.59pt로 6월 중순 수준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상향 전환했다. 원자재 내에서 에너지와 농산물 섹터의 가격 하락이 두드러졌다. S&P GSCI 에너지와 농산물 지수는 7월초대비 각각 –2.0%, –0.7% 하락했다.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와 OPEC+의 증산 합의는 에너지 섹터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. 한편, 농산물 섹터 내에서는 옥수수 가격 하락이 두드러졌다. 미국 중서부 지역의 양호한 기상 여건과 중국 내수 옥수수 시장 가격 안정화 및 경매 판매는 옥수수 가격 하방 압력을 높였다.

- 반면, 귀금속 섹터와 LME 비철금속지수는 7월초대비 각각 1.1%, 1.5% 상승했다. 귀금속 섹터는 안전자산 선호 증가 및 실물수요 증가, 비철금속지수는 중국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. 비철금속 내 특히 주석의 경우 역사적 최고치를 기록 중인데, 가전제품 수요 증가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급차질 이슈가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

- 주요 원자재* 선물•옵션의 투기적 순매수포지션은 7월 13일 주간 기준 166.1만계약으로 연초대비 –29.5% 감소했다. 특히, 원자재 내 농산물의 순매수포지션 감소가 두드러진다. 농산물 투기적 순매수포지션은 연초대비 –42.5% 하락했다. 반면, 최근 금과 구리의 순매수포지션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. 금의 순매수포지션은 2주 연속, 구리의 순매수포지션은 3주 연속 증가했다. 금과 구리로의 투기적 자금 유입은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. 미국 물가지수 발표 이후 실질금리가 하락했는데, 실질금리 하락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를 높여주는 요인이지만 향후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도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. (*S&P GSCI와 CRB Index를 구성하는 품목 중 가중치 등을 감안하여 선정. WTI, 휘발유, 천연가스, 금, 구리, 소맥, 옥수수, 대두, 브랜트유, 원당 등 총 10개 품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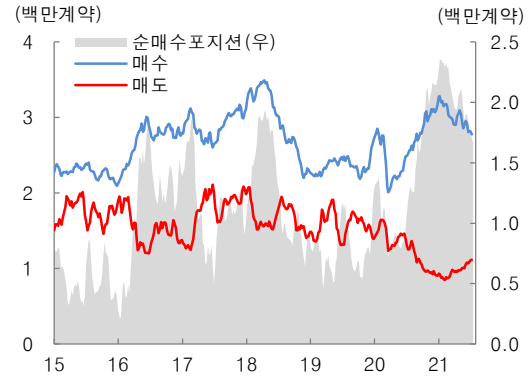
- 최근의 가격 조정에도 원유에 대한 투자가 유망해 보인다. 델타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원유수요가 예상보다 늦게 회복될 수 있겠지만 OPEC+의 증산량은 수요증가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. 또한, 이란의 핵협상 지연으로 원유공급이 단기간 내 늘어날 여지가 없어 보인다.

그림 1. 원자재지수, 달러 강세에도 상승 전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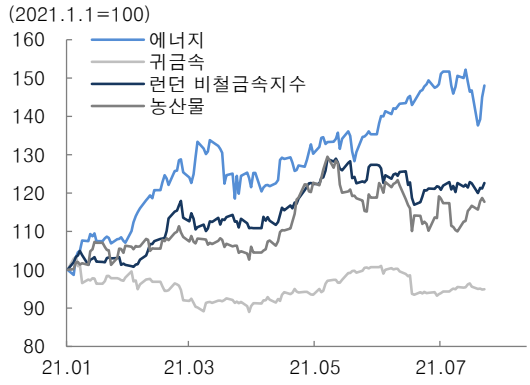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그림 2. 주요 원자재 투기 선물옵션 포지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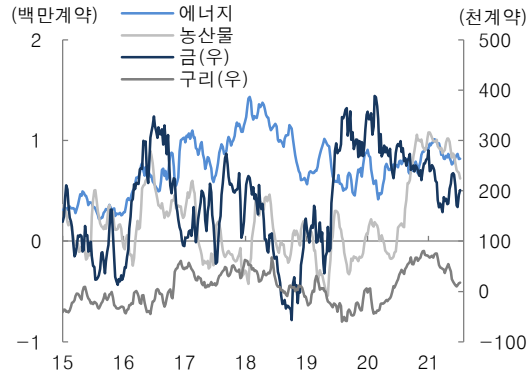
자료: CFTC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그림 3. 원자재 섹터별 가격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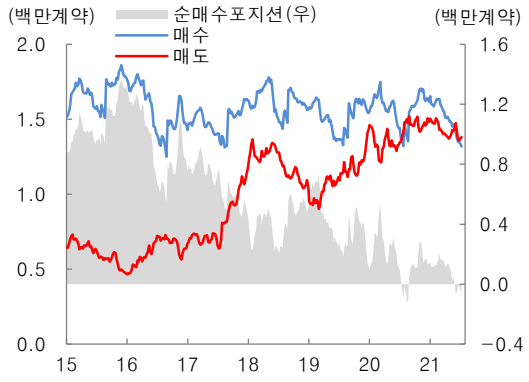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그림 4. 섹터별 투기적 순매수포지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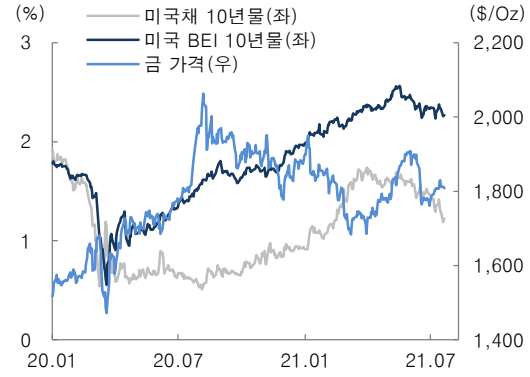
자료: CFTC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그림 5. SWAP 딜러 투기적 자금 추이



자료: CFTC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그림 6. 미국 국채금리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



자료: Bloomber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Compliance Notice

금융투자업규정 4-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,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. (작성자: 김소현)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